

김영환 선대위 "신용한, 재산신고 누락"...선관위 고발

등록 2026.05.29 17:04:52



더불어민주당 신용한(왼쪽) 충북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형성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가영 대변인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후보 재산공개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다"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신 후보 소유 빌딩이 다수 임차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에는 단 2건만 신고됐다"며 "특히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5000만원)된 한 개 칸이 재산 신고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후보가 비상장 가족회사의 담보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고, 서울 이태원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위장 거래 의혹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가 최근 5년간 소득세로 총 133만7000원만 냈는데, 그의 재산 구조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작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 신고와 납부했으며, 모든 것은 사실에 입각해 신고했다"며 "정부와 청와대

의 세 차례 인사 검증을 문제 없이 통과했고, 이미 민주당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까지 검증을 가장한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는 김 후보가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김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부터 도민에게 먼저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